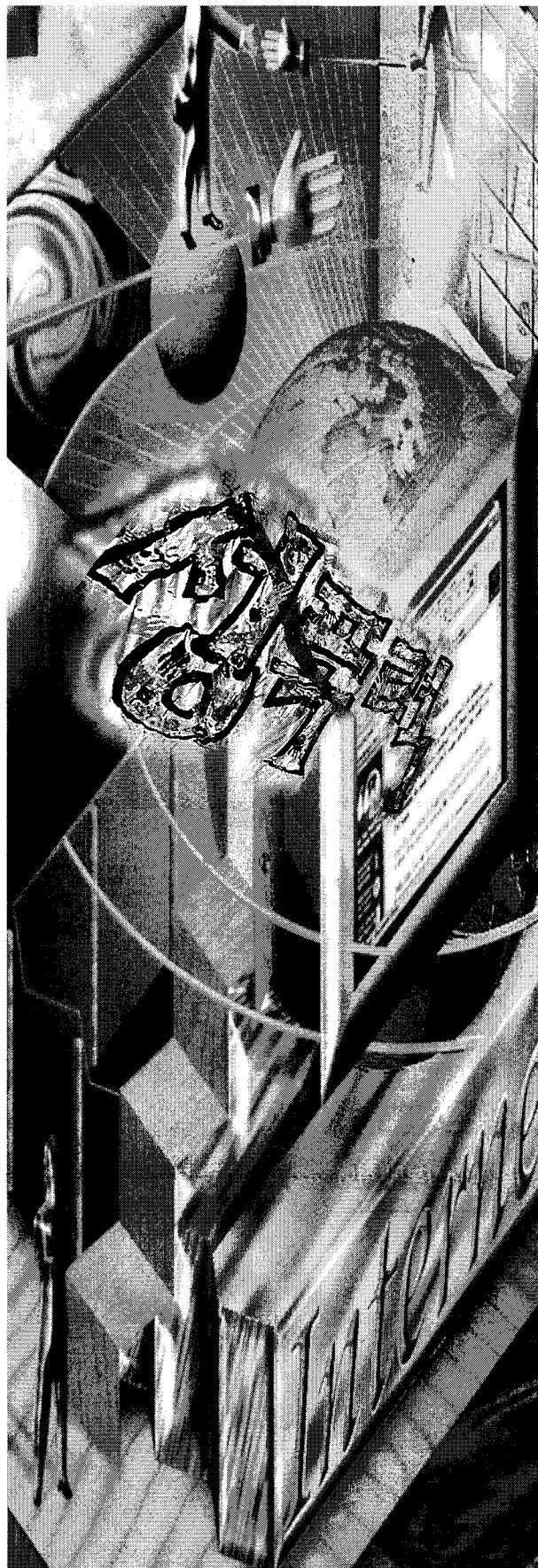


□ 시민정보사회의 미래-(하)윤리, 규범 확립과 그 전망

기술과 인간가치 조화된 신 시민사회 꿈꾼다

제도적 통제 벗어나 윤리의식 확립 통한 시민운동 활성화 필요

글 쓰는 순서

(상) 시민정보사회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하) 윤리, 규범의 확립과 그 전망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특성은 비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윤 희
(인천대 국민윤리학 교수)

오늘날 컴퓨터의 대량 보급과 멀티미디어의 대중화, 통신방송 매체와 컴퓨터 기술의 결합에 의한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시켜 세계화, 고도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의 물결은 근대 이후 확립되었던 산업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시키면서, 아울러 인간의 생활 양식과 가치 체계마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우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단절론적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은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정보기술이 전통적인 윤리 개념이나 규범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과 이의 사용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 혹은 윤리적 규범이 따라잡기 힘든 일종의 정책적 그리고 도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윤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의 정보화 과정을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학자들은 정보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아무리 다르다 해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윤리로 사회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능동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

어울 때 등장했던 자유·민주·평등·평화·박애 등과 같은 근대 시민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가 여전히 시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두가지로 대립되는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을 고집하는 것은 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두 입장의 절충적 모색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즉 전반적으로 정보사회의 윤리적 기준 및 방향은 개인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예외없이 윤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들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지적 재산의 소유권 및 보호 문제, 불건전 음란 정보의 유통 문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언어적 폭력 및 비인격성의 증대 문제, 정보 전문가의 책임 문제 등을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전지구적인 정보윤리(global information ethics) 문제

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응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규제는 다양한 법률 속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사법적 기준 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며, 또한 지나친 법적 제도적 규제는 그 자체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막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침해하는 등 또다른 윤리적 쟁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통제 보다는 정보 전문가 및 사업자, 사용자 집단 중심의 자율적인 윤리 의식 확립을 통한 자율적 규제라든가 건전한 정보문화를 위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상의 에티켓을 규정해 준 네티켓이라든가, 네티즌의 정보권 행사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네티즌의 권리장전, 그리고 정보전문가 집단의 윤리강령들이 다양하게 공표되고 있다.

또한, 몇몇 시민운동 단체들도 정보화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를 요구하고 자생적 정화조직을 결성하는 등 다양한 정보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당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정보기술과 인간 가치의 통합을 통해 기술 발전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과 이의 사용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 혹은 윤리적 규범이 따라잡기 힘든

일종의 정책적 그리고 도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존엄성이라든가 자율성, 권리, 책임, 자유와 평등 같은 기존의 윤리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모색하면서, 정보기술에 의해 발생되는 세부적 구체적 문제점들은 이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 개념 및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정보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부터 인터넷 중독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가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대주제들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첫째,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불평등, 둘째 정보의 집중적 유통에 따른 사회적 구조 조정과 혼란, 셋째, 정보체제의 집중화와 정보전달 수단의 소유 집중화, 넷째, 영어 제국주의의 전문화된 기술주의, 다섯째, 정보에 대한 공공적 무상적 접근의 감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침식과 문화 자립의 취약성이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최소

□ 정보윤리문제와 윤리의식

심의기준, 장기적 관점의 철학토대에서 마련되어야

다가올 정보사회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송·수신하는 광통신 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비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통신 공간상,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는 통신이용자 자신의 신원(Identity)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명성과 상대방과의 간격으로 인해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통신이용자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쉬우며 이는 사회 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은 유용한 정보 획득, 공유의 매체이지만 불건전 정보 접촉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PC통신, 인터넷의 불건전정보 이용 많아

지난 97년 11월 한달간 서울 시내 1000명(여학생 577명, 남학생 378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불건전 정보이용 행태를 조사 결과, 응답 남학생의 67.0%, 여학생의 14.9%가 음란 정보를 접촉한 경향이 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PC통신 이용자 및 인터넷 사용자들의

음란정보 접촉률이 각각 중학생 47.1%, 고등학생 47.4%이었고,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음란 정보를 접한 경우는 각각 중학생 26.0%, 고등학생 31.5%로 나타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이 음란물 접촉의 주요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이 갖는 익명성과 사회적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다.

통신 이용자와 전문가의 윤리의식 확립 필요

이러한 불건전 정보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특성상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초적인 예절을 흔히 네티켓(netiquette) 또는 온라인 에티켓(on-line etiquette)이라 한다. 에티켓은 프라이버시 존중, 지적 재산권 존중 등 도덕적인 문제와도 관련되며,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다 추상적인 도덕 개념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건전 정보의 대책 방안에는 사전심의나 검열의 기술적인 방법 등을 통한 접근 차단 및 행정적인 규제와 제작자의 자제, 통신이용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조직적

대책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통신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윤리의식 확립과 윤리 교육의 활성화 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여 컴퓨터 전문가들의 직업윤리의식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가들에게는 이용자의 수정가능한 안전한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 건전한 사회관계 유지 등의 윤리적 책임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 검열 등의 접근 차단방법인 심의기준은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를 제재하는 법적토대인 윤리설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보사회 구현, 공익의 실현 및 정보복지의 증대를 위한 목적론적 윤리설에 그 철학적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심의기준은 소극적으로 정보사회를 살아나가는 사회성원이 지켜야 할 모호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가올 정보사회에서는 소위된 사회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 비판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은정 기자)

학술활동

원자력 춘계 학술발표회

‘원자력 춘계 학술발표회’가 지난 29, 30일 이틀간에 걸쳐 수원 캠퍼스 중앙도서관 르네상스홀에서 한국원자력학회의 주최아래 열렸다.

첫날인 29일에는 송요섭(세종연구소)씨의 북한과 인도의 핵문제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한 장인순(원자력 환경기술원)씨와 박성래(한국외국어대)교수의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업 및 원자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강연 등이 있었다.

30일에는 총 15개 분과에서 원자력에 관한 299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철학과 제 3회 골로키움
인도의 종교문화와 성에 관해

문리대학 철학과는 지난 28일 제 3회 철학과 골로키움을 국제교육원 2층 영상매체실에서 개최했다. ‘인도의 종교문화와 성(性)’이라는 주제로 류경희(한국외국어대 종교학)강사의 강연이 있었다.

교육적이고 교양주의적인 전통이 발전한 인도에서 성이 중시되는 에로틱한 전통이 두드러진다. 이에 인도 전통의 종교 삶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료시스템 공학부 세미나

지난 29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는 의료시스템 공학부가 주관한 기(氣)와 경(精), 한의학의 질병관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소영재 공대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강연은 이해정(한국의대 경향학)교수와 안규석(한국의대 병리학)교수가 진행했다.

비교문화연구소 특강

비교문화연구소와 문화 생활 연구원에서는 3일 오후 3시 ‘기(氣)의 현대적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현 한 국어원학회 회장인 서정범 교수(국문)의 강연으로 외국어대 321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PCS 리더
:Hansol
한솔PCS

달리는 지하철에서도 한방에 통한다!

지하철 전용기지국이 따로 있는 원샷 018
비교해보시면 통화품질이 다릅니다

지하철에서도 통화는 이동전화. 되기는 되는데 잡음도 많고 자주 끊어진다구요? 원샷018이라면 이런 부실통화가 없습니다. 지하철 구석구석에 전용기지국을 설치해 완벽한 지하통신망을 구축한 원샷018. 역내에서는 물론 역과 역 사이, 지하철이 달리는 중에도 끊김없이 통화하고, 작은 속삭임까지 선명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제, 지하철에서도 원샷018로 한방에 통하십시오.

막힘없이, 끊김없이, 잡음없이
시원하게 통할 것인가?한방에 통한다
OneShot 018